

서점은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기 이전에 소형 도서관과 같은 문화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대형서점을 제외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서점은 많지 않다. 자금력 부족과 협소한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서점 경영자의 운영철학 문제이기도 하다.

서점경영자의 운영방식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카운터 위치다. 카운터가 입구에 있지 않고 서점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는 서점을 문화공간으로 생각하는 경영자가 운영하는 서점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대학교 구내서점

대학구내서점의 실실은 졸업식날 기쁘다

서점은 다양한 정보가 숨겨진 문화공간

**서점은
지식전달의 공간...
안쪽에 카운터,
서가는 학생들에게**

“처음엔 문 앞에 카운터가 있었습니다. 도난 방지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제가 바라는 서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카운터를 안으로 옮기고 책이 진열

된 공간을 학생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점이 여학생 휴게실에 붙어 있는데 서점 역시 휴식공간의 일부로 여겼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국민대학 구내서점 이상원 대표가 그린 서점의 모습은 단지 책을 많이 파는 공간이 아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책을 열람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는 지식전달의 공간이다.

이를 위해 이 대표가 신경 쓴 것은 카운터 위치 외에도 공간의 배열이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잘 하려면 일부 베스트셀러나 그 지역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책, 즉 팔릴 만한 책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교직원 등 각각의 구성원들이 있고 학생의 전공도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더 다양한 독자들이 분포하는 곳이 바로 대학교라는 것이다.

“그 달에 어떤 신간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독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물론 매체의 신간소개란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직접 서점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책장을 넘겨보는 것하고 차

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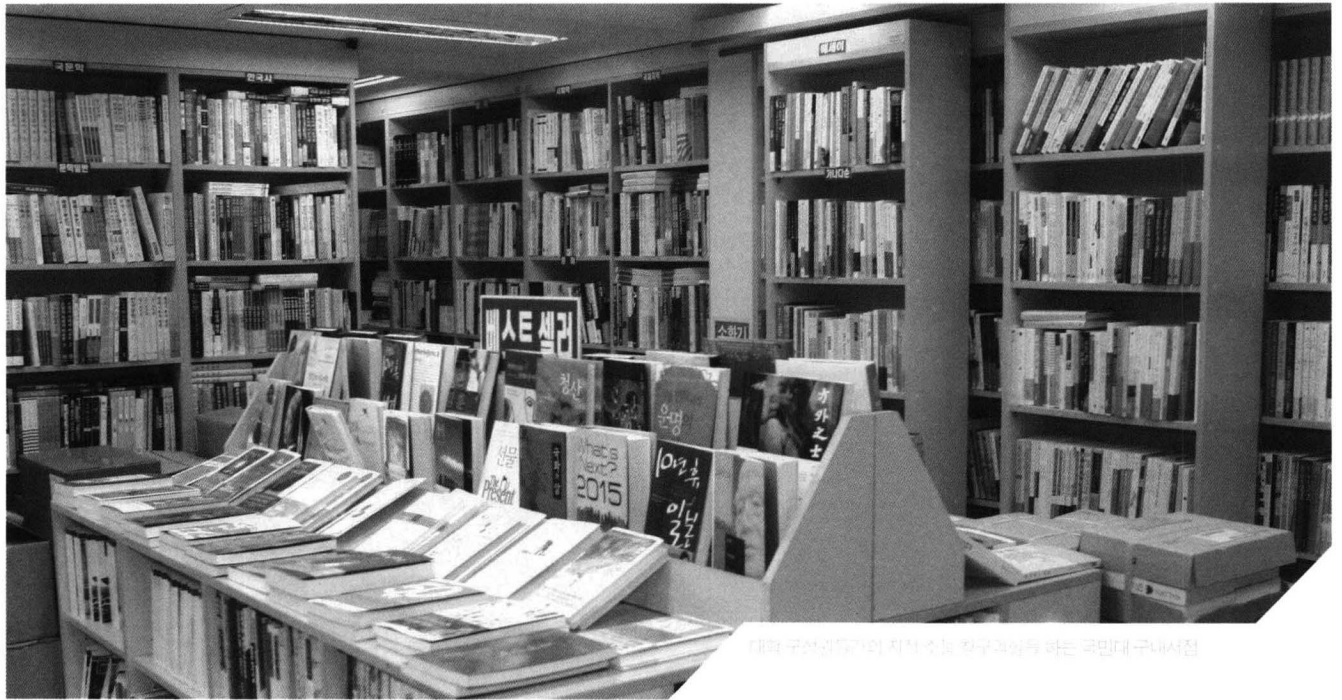
서점으로서의 회전율이 낮은 책을 진열함으로써 공간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수익금 일부
장학금 등
공동체 환원에 쓰기도**

대학 구성원의 하나로서 수익금을 좋은 일에 쓰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표는 학교당국의 도움으로 학기마다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 2명을 선정해 전공 서적 외에도 필요로 하는 책을 분야에 상관없이 무한정으로 가져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소한 돈이 없어 책을 사지 못하는 설움에서는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또한 장학금으로 해마다 1,300만 원을 기부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 사회환원’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외에도 매달 대학교수들이 젊은 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추천받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출판사와 함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서적을 특별판매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학기 초에는 개점과 폐점 시간을 기존 8시 30분에서 11시까지 늘렸으며,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특성을 감안해 주문도서를 빠른 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기본이다.

“주변에선 의외로 서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



대표 출판사들의 직영점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민대구내서점

다. 책에 대한 호감 때문이기도 하고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현실적으로 서점을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영자로서 철학만 가지고 있다면 예나 지금이나 보람 있고 매력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일에 대한 자부심과 독자를 향한 열린 경영방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은 회계결산을 할 때가 아니라 졸업식 때다. 이날이면 졸업가운을 입고 인사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다. 이 대표 역시 누가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설레는 마음에 책을 포장해 놓고 이들을 기다린다.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졸업 후에도 학교에 일을 보러 왔다가 들러 인사를 하거나 가끔은 직장에서 대량으로 책이나 도서상품권을 구입할 때 일부러 찾아와 주문을 해주기도 한다.

**책은 보호 아닌
존중의 대상...
불법복사 근절,
도서정가제 시행돼야**

하지만 내심 이러한 보람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이 대표는 불안하다. 우리 사회의 고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복사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불완전한 도서정가제 때문이다.

“정원 100명인 학과에 새로 강의가 생겼다고 가정할 경우 서회는 보통 60퍼센트 선에서 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학기가 시작하면 책이 나가는 비율은 15~20퍼센트 수준입니다. 심할 경우 1권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한 권은 틀림없이 불법복사를 위해 사간 것입니다.”

서점경영자로서 더 답답한 것은 사람들이 복사가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복사가 사회·경제·문화 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언젠가 한번은 복사집에서, 불법복사를 하

고 있다는 출판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어찌할 바를 몰라 바로 앞에 있는 국민대학 서점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복사가 왜 불법이냐는 것이다. 심지어는 서점에 찾아와 복사하려고 하는데 책 빌려달라고 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는 불법복사에 대한 홍보가 안돼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작 법체계가 미비해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도서정가제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책을 다른 공산품과 똑같은 선에서 보려고 한다.

“자꾸만 오프라인서점과 온라인서점 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몰고 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2003년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는 영향도 있지만 제가 서점을 운영하면서 보기엔 마치 출판사들이 책값 올리기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라인 서점이 등장하면서 자율적으로 지키던 도서정가제가 무너진 탓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값 상승이 주춤하고 현행법대로 도서정가제가 없어질 경우 경쟁적인 책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합니다.”

불법복사와 도서정가제의 폐지는 ‘경쟁력 없는’ 서점의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의 감소, 출판 종수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독자들이 다양한 책을 사볼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갈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책이 좋아 벌써 25년째 서점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책이 보호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존중받아야 할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불법복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취재 신동섭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